

기혼여성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갈등과 만족도 분석

이현정 · 원효현[†] · 강버들
(부경대학교)

Analysis of Conflict and Satisfaction on Learning of Married Woman Learners

Hyun-Jung LEE · Hyo-Heon WON[†] · Beodeul KA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analyzing married woman learners' types of learning desire, factors of conflict and satisfaction of learning. The subjects were 165 married women who were in attendance at general graduate schools located in Busan city and Gyeongnam provinc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Married woman learners preferred schools of natural sciences to schools of liberal arts, and entered graduate schools mainly according to their wishes. Secondly, Their learning desire type was followed by purpose-oriented, learning-oriented, and activity-oriented types. Thirdly, internal factor in their conflict factor was higher than external factor. Lastly, positive aspect in learning satisfaction was higher than negative aspect.

Key words : Married woman learner, Learning, Conflict and satisfaction

I. 서론

현대 사회는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아지면서 성인학습자들, 특히 여성 성인학습자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전문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혼 여성에 대한 인력개발 및 활용,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학습지원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고등교육의 확대, 남녀 평등의식의 확산으로 인해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키우고 있는 여성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교육기회가 적을 때 교육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부족한 학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정규 대학과정이나 대학원과정을 평생학습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Shin(2002)은 보고하였다. 기혼여성 학습자들은 제각기 다른 경험을 통해 삶의 패턴을 형성하고 있기에 그만큼 다양하고 복합적인 학습욕구를 소유하고 있을 것이다. 기혼여성의 대학원 교육 시기는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을 포함한 가정생활을 고려하여야 할 연령대에 속한다.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은 전통적인 성역할 분업에 의해 요구되는 가정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뿐만 아니라, 대학원을 통해 사회 활동 영역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원 과정에 있는 기혼여성

[†]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972, wonhyo@pknu.ac.kr

학습자들은 가사만으로도 엄청 바쁜 현실 속에서 시간을 쪼개어 학습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그래서 대학원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혼여성 학습자들이 다중역할 수행자로서의 심리적, 육체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욕구는 무엇이며, 대학원 학습을 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기혼여성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이 학습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면 그들의 대학원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기혼여성 학습자의 학습욕구유형과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학업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기혼여성 학습자들의 학습욕구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기혼여성 학습자들의 학습에 따른 갈등은 어떠한가? 셋째, 기혼여성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성인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신의 삶에 대해 기본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만 18세 이상의 사람,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역할수용과 책임 수행능력을 갖춘 사람,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자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이다(Kwon & Cho, 2001).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연구하게 된 것은 1970년부터이다. 학자들은 성인학습자와 성인학습에 관한 연구(Knowles, 1989; Merriam et al., 2007)를 통해 성인학습에 관한 이론과 원리 등을 설명하고 있다.

성인학습자 중 기혼여성은 다양한 생애경험을 지닌 성인학습자로 접근해야 하며, 고등교육은

여성들의 삶에 있어 하나의 생애사건들이자 삶 전체의 변화 과정(Lee, 2010)이기 때문에 기혼여성 성인학습자들은 삶 전체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험의 기회를 갖게 된다.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기혼여성들에게 대학원교육에 대한 기대와 열망은 성인남성 학습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Gwak, 1998).

가정을 이루고 있는 기혼여성들이 고등교육에 참여 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가시간을 활용하거나 교양을 쌓기 위한 차원을 넘어서 나름의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성인학습자의 학습 참여 동기 관련 연구는 대부분 Houle(1961)의 목적지향, 학습지향, 활동지향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하고 있다.

목적지향형 학습자들은 학습 참여 동기가 지식과 기술의 전문적 향상이나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통한 직업상 발전의 목적으로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필요나 학습자의 이익 추구를 위한 욕구 충족으로 가장 구체적이며 명백한 선택이다(Kim, 2004). 이러한 유형의 학습자는 현실적인 이익이나 필요 등 이해관계에 의해 목적을 충족시키려는 욕구로 학습에 참여한다.

학습지향형 학습자들은 배움과 지식 그 자체를 추구한다. 학습자들은 학습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알고, 인격적으로 성장하려는 근본적인 소망을 지니고 있다. 그와 같은 활동은 지속적이고, 학습활동마다 지니고 있는 의미들의 총체는 곧 학습자의 참여 동기가 된다(Lee, 2003). 따라서 학습지향형 학습자는 지식습득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아개념을 지니며, 자신을 학습에 몰두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육은 특별활동이 아닌 매우 일상적인 일 중의 하나이다.

활동지향형 학습자들은 특정목표를 획득하거나 어떤 과목을 배우기보다는 활동 그 자체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한다(Park & Lee, 2011). 활동지향형 학습자들에게 성인교육기관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우정을 갖는 개방된 장소이며,

사회적으로 인정된 장소이다. 또한 그들에게는 학습참여가 고독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다(Im, 2006). 이러한 유형의 학습자들은 단조로운 일상 또는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어려운 상황을 탈출하고자 학습을 선택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혼여성 학습자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동기와 욕구로 학습에 참여하고 있지만 학령기 학습자가 아닌 비 학령기 성인학습자로서 가사와 육아, 직업을 병행하며 대학원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체력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면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Carp et al.(1974)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학습참여 상황에서 생기는 갈등요인은 성인학습자와 마찬가지로 시간적 제약과 교육경비 부담, 가족의 몰이해와 비협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있다. 또한, 다양한 개인적 특성과 학습능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 오랜 학업중단에 따른 학습지속의 자신감 상실과 두려움, 학습 그 자체에 대한 공포감과 학습 스트레스 등이 남성 성인학습자보다 높아 교육 참여를 저조하게 만들거나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wak, 1998).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기혼여성들의 학습참여 저해요인은 직장과의 병행으로 인한 어려움, 교육비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특히 자녀양육 문제와 가정과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은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갈등요인이었다(Carp et al., 1974)

최근 들어 평생교육의 취지로 사회교육원 성인 학습자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학습만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분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도 학습이라는 것이 학생과 학교간의 쌍방향적인 교감과 소통이 존재해야만 학습효율성이 제고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학습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의 학습동기, 학습자의 특성,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품질만을 다룸으로써 종합적인 관점에

서 학습만족도를 다룬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Alsant(2001)는 만족도란 학습자의 교육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Kim(2002)는 조사된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의 질과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과거에는 학습자의 요구가 주로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연구 또한 그러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문화수준과 이질적인 대중들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학습수준에서 매우 다양한 교수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연구 또한 이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학습만족도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관점에서 기혼여성 학습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현재 부산, 경남 지역의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기혼여성 학습자 165명이다. 배부된 설문지는 200부이었고, 회수된 설문지는 170부였다.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65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 검사 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는 학습자 개인적 특성(10문항), 기혼여성 학습자의 학습욕구(12문항), 학습과정에서의 갈등요인(12문항), 학습만족도(20문항) 등 총 5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검사지 중 학습욕구에 관한 문항은 대학원과정 기혼여성 학습자의 특성(Koo & Hong, 2005; Shin, 2002; Chang & Boo, 2003) 논문과 Houle(1961)의 논문, 학습과정에서의 갈등관련 문항은 Carp et al.(1974), Cross(1981), Jung & Choi(2001)의 논문을 참고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나머지 문항은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검

사지는 4명으로 구성된 교육학 전공자 그룹이 검토한 후 재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시되었으며, 각 영역별 문항 수와 신뢰도는 <Table 1>과 같다. 자료 분석은 SPSS(version 19.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Table 1> Reliability(N=165)

division	factor	Cronbach's α
learning desire	learning directivity	.752
	activity directivity	
	purpose directivity	
conflict	external conflict	.876
	internal conflict	
learning satisfaction	positive	.806
	negative	
total		.900

IV. 결과 및 논의

1. 학습욕구

기혼여성 학습자의 대학원교육 학습참여 욕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목적지향, 학습지향, 활동지향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학습 참여 동기를 분석한 결과 목적지향, 학습지향, 활동지향 순으로 학습욕구가 높았다(<Table 2> 참조). 이는 대학부설기관의 평생교육센터나 주민자치 평생교육센터, 유료 문화센터 평생교육기관에서 여성학습자의 참여 동기 중 활동지향형 학습자가 높게 나타났다(Kim, 2004; Lee, 2003)라는 주장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목적지향적인 문항(5점 만점)에서는 전문적인 여성으로 인정받고 싶다(4.19), 경제활동(직업)선택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4.14)의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Houle(1961)의 학습참여 욕구가 구체적이고 명백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Morstain & Smart(1976)의 승진이 나 전문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에 참가한다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학습지향형 학습자는 새로운 지식습득 그 자체의 만족감이 좋다(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hoi(1986)의 지적 호기심 충족과 자기만족을 위한 내적 성취동기가 강하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Table 2> Learning desire(N=165)

division	contents	ave.	S.D.
purpose directivity	advantage of job choice	4.14	0.71
	recognition of professional woman	4.19	0.72
	need of professional knowledge	3.53	1.21
	advantage of advancement	3.50	1.37
	average	3.84	-
learning directivity	satisfaction of knowledge learning	3.95	0.75
	learning of new field	3.58	1.03
	pleasure of learning	3.87	0.85
	expect of graduate school life	3.85	0.97
	average	3.81	-
activity directivity	need of escape region	2.72	1.32
	formation of new human relations	3.79	0.88
	participation of rapid information age	3.84	0.87
	degree need	3.66	1.03
	average	3.50	-

활동지향형 욕구의 현실도피(탈출구)의 합리적 이유가 필요했다(2.72)가 전체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기혼여성 학습자의 학습참여 욕구 유형이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목적지향형 욕구는 41-45세 연령대가 가장 높았고, 30세 이하 연령대가 가장 낮았지만,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습지향형 욕구는 56세 이상 연령대가 가장 높았고, 30세 이하 연령대가 가장 낮았다. 유의수준 p<.01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사후분석 결과 56세 이상 연령대가 30세 이하 연령대보다 학습지향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활동지향형 욕구는 56세 이상 연령대가 가장 높았고, 36-40세 연령대가 가장 낮았다. 유의수준 p<.05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사후분석 결과 56세 이상 연

령대가, 36-40세 이하 연령대보다 활동지향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며 대학원을 통해 지식을 쌓거나 활동 범위를 넓히려는 생각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최근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학원이 기혼여성들에게 가정 외적으로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지적 충족의 발판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3> Learning desire type on age

division	age	ave.	S.D.	F	Scheffe
purpose directivity	-30	3.50	0.70	0.530	-
	31-35	3.87	0.74		
	36-40	3.75	0.69		
	41-45	3.92	0.79		
	45-50	3.87	0.71		
	51-55	3.91	0.72		
learning directivity	56-	3.88	0.67	4.824**	①<⑥ ⑥<⑦
	-30	2.90	1.26		
	31-35	3.56	0.77		
	36-40	3.73	0.59		
	41-45	4.00	0.58		
	45-50	3.90	0.63		
activity directivity	51-55	3.94	0.52	0.328*	③<⑦
	56-	4.28	0.68		
	-30	3.81	0.34		
	31-35	3.42	0.55		
	36-40	3.26	0.54		
	41-45	3.78	0.85		
	45-50	3.52	0.90		
	51-55	3.35	0.46		
	56-	3.94	0.55		

*p<.05, **p<.01

①:-30, ②:31-35, ③:36-40, ④:41-45, ⑤:46-50, ⑥:51-55
⑦:56-

2. 갈등

기혼여성 학습자의 학습에서의 갈등요인을 외적 갈등요인과 내적갈등요인으로 분석하였다(<Table 4>참조). 연구결과 내적갈등들이 외적갈등보다 기혼여성 학습자에게 더 큰 영향을 주었다.

내적갈등요인으로는 영어실력 부족(3.57), 발표

의 두려움(3.54), 학습 이해도 저하(3.41), 교육내용과 나의 부적응(3.27), 가족에 대한 걱정(3.13), 교육내용의 불만족(3.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Carp et al.(1974)의 학습자 자신의 능력 및 학습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갈등 원인이라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인 대학원과정에서 학습자는 과제와 논문 등과 같이 제출일이 정해져 있는 학업수행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업단절로 인한 기혼여성 학습자들의 내적갈등이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able 4> Conflict type(N=165)

division	contents	ave.	S.D.
external conflict	increase of cost of living	3.62	1.09
	complain of family	2.88	1.27
	lack of learning time	3.66	1.14
	tact of family & company	3.08	1.28
	information lack on school life	2.95	1.11
	interaction lack on friends	2.90	1.13
	average	3.18	-
internal conflict	fear of presentation	3.54	1.17
	lack of English	3.57	1.23
	maladjustment of learning contents	3.27	1.18
	dissatisfaction of learning contents	3.04	1.19
	lack of understanding	3.41	1.11
	worry on family	3.13	1.28
	average	3.33	-

분석 결과, 한국사회는 여전히 기혼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가정생활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의 기혼여성들은 경제력을 가지면서 부부관계가 일부 대등해지고 집안일을 나누는 부부도 늘어났지만, 가정생활에서 자녀의 양육은 여전히 여성의 역할로 주어지고 있다.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그 책임은 기혼여성 학습자에게 돌아오며, 학업과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힘든 상황에서도 기혼여성 학습자에게 기대하는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외적갈등은 다중 역할 수행으로 인한 학습시간의 부족(3.66), 교육비와 교통비 등 추가되는 생활비 부담(3.62), 가족이나 직장의 눈치(3.08), 학교생활에의 정보 부족(2.95), 동료들과의 교류 미비(2.90), 늦은 귀가에 대한 가족의 불평(2.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습자가 처한 상황, 생활환경으로부터 오는 상황, 시간적 문제,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 가족의 비협조, 개인적인 상황요인으로 비용, 시간부족이 기혼여성 학습자들에게 갈등이 된다고 보고했던 Kim(1993)의 연구를 통해 20여 년 전과 현재를 비교해 볼 때 순위만 다를 뿐이지 기혼여성 학습자들은 여전히 비슷한 외적 갈등 요소로 갈등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혼여성 학습자들의 연령에 따라 느끼는 갈등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Conflict on age

division	age	ave.	S.D.	F	Scheffe
external conflict	-30	3.33	0.67	3.814**	④>⑦
	31-35	3.39	0.92		
	36-40	3.42	0.89		
	41-45	3.46	0.79		
	45-50	3.06	0.84		
	51-55	2.63	0.72		
	56-	2.80	0.95		
internal conflict	-30	3.04	0.86	1.822	-
	31-35	3.01	0.95		
	36-40	3.44	0.96		
	41-45	3.67	0.86		
	45-50	3.23	0.71		
	51-55	3.19	0.74		
	56-	3.53	0.88		

**p<.01

①:-30, ②:31-35, ③:36-40, ④:41-45, ⑤:46<50, ⑥:51-55
⑦:56-

외적갈등요인은 41-45세 연령대가 가장 높고, 51-55세의 연령대가 가장 낮았다. 유의수준 p<.01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41-45세 연령이 56세 이상 연령층보다 외적갈

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대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연령인 56세 이상의 학습자들보다 중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연령인 41-45세의 학습자들이 더 큰 외적갈등을 느낄 수 있다고 분석된다. 내적갈등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3. 학습만족도

학습자의 대학원교육의 만족도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분석한 결과, 긍정적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6> 참조).

<Table 6> Learning satisfaction(N=165)

division	contents	ave.	S.D.
positive	learning of information	4.07	0.64
	improvement of self confidence	3.91	0.82
	advantage on family and company	4.04	0.82
	expansion of thinking	4.06	0.68
	active communication	3.64	0.85
	increase of culture consciousness	3.77	0.80
	satisfaction on study conflict	3.85	0.75
	energy of life	3.82	0.84
	average	3.90	
	negative	mess of home life	2.28
bad habit of children		2.37	1.22
trouble of family		2.26	1.12
financial burden		3.12	1.19
limitations of stamina		3.69	1.96
lack of self confidence on graduation		2.70	1.09
loss of self confidence		2.41	1.11
average	2.69		

긍정적 측면에서는 사회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많이 얻고 있다(4.0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서 생각의 폭이 깊어졌다(4.06), 학습경험이 가정 및 직장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다(4.04)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체력의 한계를 느낌(3.69), 경제적 부담감(3.12) 등이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기혼여성 학습자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배경은 다양했지만 전문적인 여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경제 활동에 주체가 되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며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기혼여성 학습자들은 학습과 직장의 병행으로 오는 어려움, 가정주부로서 남편과 자식에 대한 역할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여러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배움에 대한 욕구와 열정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있었다.

기혼여성 학습자들의 연령에 따라 느끼는 학습만족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Learning satisfaction on age

division	age	ave.	S.D.	F	Scheffe
positive	-30	3.75	0.42	4.130**	⑦>③
	31-35	3.70	0.60		
	36-40	3.65	0.49		
	41-45	3.81	0.60		
	45-50	3.85	0.43		
	51-55	3.91	0.42		
	56-	4.43	0.56		
negative	-30	2.38	0.60	7.343**	④>⑦
	31-35	2.72	0.72		
	36-40	2.97	1.03		
	41-45	3.23	0.77		
	45-50	2.71	0.83		
	51-55	2.05	0.59		
	56-	2.05	0.56		

**p<.01

①:-30, ②:31-35, ③:36-40, ④:41-45, ⑤:46<50, ⑥:51-55
⑦:56-

긍정적 측면에서는 56세 이상의 학습자가 가장 높았으며, 36-40세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유의수준에서 p<.01 에서 유의미했으며, 사후검증 결과 56세 이상의 학습자가 36-40세 학습자들보다 학습만족도에 대하여 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부정적 측면은 41-45세의 학습자가 가장 높았으며, 56세 이상의 학습자가 가장 낮았다. 유의수준이 p<.01 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사후검정 결과 56

세 이상의 학습자보다 41-45세 학습자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더 높았다.

V. 결론

일반대학원 석사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기혼여성 학습자의 학습욕구유형과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학업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 학습자들의 학습욕구유형을 목적지향, 학습지향, 활동지향의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목적지향, 학습지향, 활동지향 순으로 학습욕구가 높았다. 목적지향적인 문항에서는 전문적인 여성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4.19)가 가장 높았으며, 학습지향형에서는 새로운 지식습득에 대한 만족감(3.95)이 가장 높았다. 반면, 활동지향형은 빠른 정보화 사회에 뒤처지지 않기 위함(3.84)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기혼여성 학습자는 직업적 성취, 당면한 문제해결, 새로운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 사회적 관계형성 등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주체성을 갖고, 다양한 학습상황에 대한 선택을 하며 자신의 생활경험을 배경으로 학습에 참여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대학원에서는 이러한 결과들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보강한다면 기혼여성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혼여성 대학원생의 갈등요인을 내적갈등과 외적갈등요인으로 분석한 결과, 내적갈등요인이 외적갈등요인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내적갈등요인으로는 영어 실력의 부족함을 느낌(3.57), 발표에 대한 두려움(3.54)의 순으로 나타났고, 외적갈등요인으로는 다중역할로 인한 학습시간 부족(3.66), 추가되는 생활비 부담(3.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 학습자들의 갈등은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기존의 기혼여성들에 대한 선행연구와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한국의 기혼여성 학습자들은 높은 학력수준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졌음에도 기혼

여성 학습자들 스스로가 슈퍼우먼이 되려고 하거나, 갈등상황을 합리화하며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접어든 한국사회의 기혼여성들은 여전히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가정생활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강요받는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원생활의 갈등을 배우자나 가족들과 나누어 해결하기보다 혼자 감내하며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기혼여성 학습자들이 가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가족들과의 폭 넓은 소통을 위한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셋째, 기혼여성 학습자의 학습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분석한 결과, 긍정적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 측면에서 사회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많이 얻음(4.07)이 가장 높았으며, 부정적 측면에서는 체력의 한계를 느낌(3.6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여성 대학원생들은 같은 학습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습욕구와 갈등요인이 다르고, 연령을 포함한 개인 배경 특성 및 이전의 경험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학습욕구와 갈등 또한 적령기 학습자들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학습만족도가 긍정적 영향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대학원 학습의 의미가 학습자의 삶에 긍정적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기혼여성 학습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진학하여 그들의 삶에 새로운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이러한 연구 결과를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구 결과, 연구에 참여한 기혼여성들에게 대학원 진학의 목적은 전문적인 여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러 가지 갈등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 대학원생들은 학습만족도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혼여성 대학원생들의 연령대 중 40대 이후의 학습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 이는 수명 연장, 자녀의 양육 기간 축소, 수입과 여가 증대, 여성고등교육의 보편화 등과 같은 내·외적 변화에 따라 가정 내 기혼여성의 역할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고등교육에 대한 기혼여성 학습자들의 학습참여 욕구, 갈등요인, 학습만족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혼여성 대학원생의 학업 단계에서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 때문에 학업 성취가 떨어지거나 학업 중단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lsant, A. I.(2001). Adult learner's perception of their life development in relation to their current experience in an educational program. ph. D. diss. University of Consin-Madison.
- Carp, A., Peterson, R. & Roelfs, P.(1974). Adult learning interests and experiences. In K. P. Cross., J. R. Valley., & Associates (Eds.), Planning non-traditional programs: an analysis of the issues for post secondary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Chang, J. E & Boo, G. C.(2003). Hidden Choice: Paid Work and Child Care for Married Female Workers, *Woman Research*, 65, 149~179.
- Choi, U. S.(1986). Analysis of educational participation characteristics by the adult educational programs in Korea, A Docto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Cross, K. P.(1981). Adult as learners: increasing participations and facilitating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 Gwak, S. G.(1998). *Woman and Education*, Seoul: Pakyoungsa
- Houle, C. O.(1961). *The inquiring mind*.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Im, S. H.(2006). The effect on School Adaptation of Self-concept, Learning Motive & Learning

- Aptitude. A Docto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 Jung, I. S & Choi, U. S.(2001). Culture Case Analysis on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element of Woman Adult learner, *Woman Social Education*, 6, 177~203.
- Kim, A. Y.(2004). A study on learning outcome perceived by adult learners in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institutions. A Doctor's thesis. Dankook University.
- Kim, Y. H.(2002). The Effects of service quality factors in university education on the students' satisfaction and subsequent behaviors. A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 Kim, Y. G.(1993). A Study on Particion Promotion of Adult Education, A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 Knowles, M. S.(1989).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Chicago: Follett Publishing Company
- Koo, M. S & Hong, S. U.(2005). Married Women's Return to the Workforce : Findings from the Participants in a Reemployment Training Program,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3), 153~167.
- Kwon, D. S. & Cho, A. M.(2001). *Adult learning & counseling*, Seoul: Kyoyookbook
- Lee, J. H.(2010).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o learn, metacogni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flow, and school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8(2), 67~92.
- Lee, S. W.(2002). An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n Adult Learners' Persistence in University Attached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A Docto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Lee, S. W.(2003). Comparing Learners' with Institutions' Factors that Influence on Persistence in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9(1), 117~147.
- Merriam, S. B., Caffarella, R. S. & Baumgartner, L. M.(2007). *Learning in adulthood: a comprehensive guide* (3rd eds.). San Francisco: Jossey-Bass.
- Morstain, B. R. & Smart, J. C.(1976). Factor analysis at large: Acritical review of the motivation al orientation literature. *Adult Education*,27(1),83~98.
- Park, C. D. & Lee, H. S.(2011). A Study of the Effects of Formal CoP Participatory Motivations on Adult Learners' Performances: Focusing on the K Bank Organization, *Korean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7(3), 83~107.
- Shin, M. S.(2002). Universities of Colleges as Institutions of Lifelong Learning for Adult Women in Korea-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8(1), 121~151.

-
- Received : 28 March, 2016
 - Revised : 09 May, 2016
 - Accepted : 19 May, 2016